

(말리바)

## 추혜선 의원 “홍콩 페이퍼컴퍼니는 KEC 오너의 사금고” 주장에

# 회사측 “홍콩법인과 거래 전혀없다” 정면 반박

### KEC에선 무슨일이

말리바, 티에스재팬 지분 100% 소유 “KEC, 국책 선정엔 외주생산할 것 구미 노동자 600명 고용문제 초래”

경북 구미공단 1호 반도체 회사인 KEC 그룹 광정소 회장의 비리경영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홍콩법인 ‘말리바’가 KEC 광정소 일가의 사금고”라며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말리바는 지분소유구조, 거래관계, 재무관계에서 외관상으로 KEC와 아무 관련 없지만, KEC에 원재료를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KEC 광정소 회장 사금고 말리바 고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공급하는 티에스재팬(TS-JAPAN)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티에스재팬의 대표이사는 광 회장의 일본인

배우자 오시로 사치코씨다. 오시로씨 지분이 50%이고, 나머지 각 25%는 광 회장의 아들 정우씨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오시로 사오리씨가 갖고 있다.

추 의원은 “이쯤 되면 세 회사의 지주사

인 말리바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말리바는 비상장법인인어서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지 않지만, 홍콩 신용정보회사의 평가 결과 연매출은 4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KEC에서 19년간 근무했던 이종희 전 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KEC는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주생산할 것이 분명하다”며 “구미공장 600여 노동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EC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KEC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 박명덕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금속노동조합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KE

C와 말리바는 거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말리바가 티에스재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광 회장 일가가 말리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박 사장은 “말리바의 주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티에스재팬과 (KEC가) 특수관계자라고 거래가 전부 이상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에 대해 “KEC에 사실상 계를 한 번도 문의하지 않았다”며 “KEC도 한국 기업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KEC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의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자 개발’ 국가정책사업 1차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말 국책사업 최종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포스코, 내달 주총때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사내이사 후보 3명 추천

포스코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한편, 주주가지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2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박희재 서울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학동·정탁 부사장을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과 정문기 성균관대 교수(경영학)를 사외이사 후보로,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들은 포스코 이사후보추천 및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돼, 다음달 1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박희재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벤처기업 ‘SNU프리티전’을 설립한 ‘교내 벤처 1세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학동 후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을 거쳐 지난달 생산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정탁 후보는 ㈜대우로 입사해 쿠알라룸푸르지사장, 금속본부장, 포스코



박희재 사외이사 후보(왼쪽부터), 정탁, 김학동 사내이사 후보.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철강사업전략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철강사업본부장으로 선임돼 현재 마케팅본부를 이끌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임 이사 후보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과 생산·마케팅 현장경영, 산학협력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스코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상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의사 등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와 분기배당 등을 시행중인 포스코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전자투표 방법을 안내한 뒤 다음달 주주총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내달 5G 상용화… 통신3사 올 3조 투자”

### 홍남기 부총리, 혁신전략회의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은행 결제망 시스템 연내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다음달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쓴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 말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ICT산업 자체의 발전을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산단 혁신추진협의회에서 창원·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산단에는 올해에 국비 2000억원 이상이 지원되며, 정부는 산단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올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33% 증가

일 8시간 주 5일 월급 173만68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 월급이 지난해보다 무려 33%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여건까지 악화시키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월급 중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는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해 146만9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4일(한 달 내 유급 주휴일)을 곱해 26만72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데다, 주당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0원이 된다.

/연합뉴스

## “5G 성패, 서비스·콘텐츠 확보에 달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서비스와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영민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에서 황창규 KT 회장, 오성복 사장 및 협력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5G 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5G 릴레이 산업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

뤄졌다. 지난달 유 장관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등과 함께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5G 준비 현황을 살핀 바 있다.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다양한 5G 서비스 및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KT는 미세먼지 관리, 실시간 드론·로봇제어 등 준비 중인 5G 서비스를 시연했다. KT는 이천시 미세먼지 상황실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을 가정에 살수차 출동 훈련을 진행했다.

/김민인 기자 silkni@